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잘겹하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잘겹하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잘겹하다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잘겹하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뜻밖의 일에 자지러질 정도로 깜짝 놀라다.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잘겹후다	-	-	-
잘겹하다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뜻밖의 일에 자지러질 정도로 깜짝 놀라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3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4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잘겹하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뜻밖의 일에 자지러질 정도로 깜짝 놀란다.

☞ 잘겹하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잘겹하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잘겹후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잘겹하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잘겹후- 문헌 수록 표기	—	—	—	—	●→	—
잘겹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잘겹후다
19세기
- 잘겹하다



잘겅하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잘겅하다’의 옛말인 ‘잘겅후다’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잘겅후-’는 어근 ‘잘겅’과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후-’가 결합한 것이다.



소리와 발음의 특징

18세기 이후 제1음절의 ‘·’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후-’가 ‘-하-’로 바뀌면서 20세기에 ‘잘겅하-’가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잘겅하다

전체 용례 3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잘겅후-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잘겅후-

출처 1880 한불사전 529

용례 01

66 문헌 용례

잘겹ㅎ다 [怯].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잘겹하-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잘겹하-

출처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용례 02

66 문헌 용례

잘겹하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57 큰사전

용례 03

66 문헌 용례

잘겹하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잘겹하다에 관한 주석

어근 ‘잘겹’에 조사가 결합한 예를 20세기에 볼 수 있다. [예] 참새는 잘겹을 해서 포로롱 날러가 버렸습니다. 화로에 묻었던 밤이 튼 것이었습니다. 아마 배꼽을 따지 안혔던가 봐요. ‘잘겹ㅎ다’는 용언 ‘질겹(窒怯)ㅎ다’가 형태가 바뀌어 나타난 말로 보인다. ‘질겹’이 ‘잘겹’으로 바뀐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명사 ‘질겹(窒怯)’과 ‘질겹하다’는 20세기부터 예가 나타난다. [예1] 처음에 웃던 남자인 줄 알고 질겹을 ㅎ다가 말소리를 주세이 드른죽 녀주에 음성이 분명하고 <1914 추천명월 80> [현대어 역] 처음에 어떠한 남자인 줄 알고 질겹을 하다가 말소리를 자세히 들으니 여자의 음성이 분명하고 [예2] 불안간 질겹하야 쌀그릇을 그 자리에 내버리고 집안으로 도망하려 하였다

잘겅하다 관련 낱말

질겅하다

잘겅하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잘겅하다의 뜻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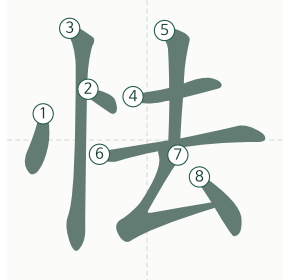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怯

뜻·음 겁낼 겁

총 8획 · 부수 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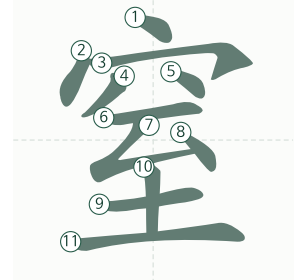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怯/

窒

뜻·음 막힐 질

총 11획 · 부수 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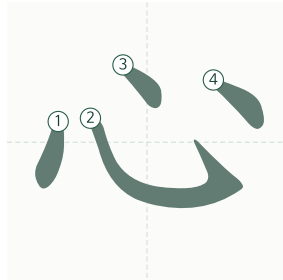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窒/

心

뜻·음 마음 심

총 4획 · 부수 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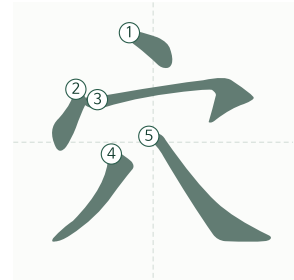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心/

穴

뜻·음 굴 혈

총 5획 · 부수 宀



hanja.wordrow.kr/한자/穴/